

독립운동가 梵亭 張炯의 단군민족주의와 건학이념

박 성 순*

국문초록

8.15 이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을 교명에 담은 대학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國民, 檀國, 國學, 建國, 東國, 弘益, 新興 등의 교명을 내건 대학들의 등장은 해방과 독립이라는 문명사적 자의식에 기반한 민족의식의 발현이었다. 특히 이들 중 여러 대학들이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이중에서 ‘弘益人間’을 건학이념으로 표방한 학교는 단국과 홍익이 대표적이었다. 단국대학을 설립한 梵亭 張炯(1889~1964)은 독립운동 시기는 물론 8.15 이후에도 백범 김구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던, 김구 정치사상의 계승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었다. 따라서 장형의 건학이념은 8.15 이후 민족주의 세력의 입장과 지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올바른 전통문화 계승의 핵심은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있다. 장형의 단군민족주의는 사상탄압에 앞장선 일민주의와는 달리 민주주의 정착과 민족통일의 시대적 과제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형의 단군민족주의는 전통사상과 당대의 시대정신이 적합하게 조응할 때라야만 가장 이상적인 역사적 의미를 견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주제어] 법정 장형, 단군민족주의, 민주주의 정착, 통일민족국가 수립, 전통과 시대정신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장형의 단군민족주의가 지닌 역사적 함의 |
| II. 장형의 ‘단국’ 교명 제정과 관련된 두 시각 | V. 맺음말 |
| III. 문교당국의 ‘홍익인간’ 교육이념 제정과 왜곡 | |

* 단국대학교 부교수 / ttiger97@dankook.ac.kr

I. 머리말

8.15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학 설립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근대지식의 부족에서 우리민족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자각에서부터 1920년대 초반 민립대학설립운동으로 이어져 오던 ‘민족교육’에 대한 열망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¹⁾ 그리하여 일제강점기 때 대학 자격을 얻지 못했던 전문학교들이 숙원이던 4년제 대학으로 인가받는가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에서 표방한 것처럼 ‘國民皆學’의 실현으로 국력을 증진시키려는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대학이 설립되기도 하였다.²⁾ 한편 8.15 이후 농지개혁과정에서 ‘문교재단 소유농지 특별보상법’으로 문교재단에 특혜를 주자, 많은 지주들의 농지가 문교재단으로 유입되면서 사립대학이 팽창되는 결과도 나타났다.³⁾

미군정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⁴⁾ 한국의 민족주의가 억압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을 교명에 담은 대학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국민대학관⁵⁾을 포함하여 檀國, 國學, 建國, 東國, 弘益, 新興 대학 등이 그것이었다. 이들 대학의 등장은 해방이라는 전환기 문명사적 자의식에 기반한 민족의식을 교명에 담아 구현코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대학을 설립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大敎敎라는 단군민족주의⁶⁾를 항일투쟁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⁷⁾ 그 중에서도 ‘弘益人間’을 건학이념으로 표방한 학교는 단국과 홍익이 대표적이었다.⁸⁾ 홍익대학은 대종교 인사들이 세운 학교로 알려져 왔으나, 그에 비해서 단국대학을 설립한 梵亭 張炯(1889~1964)이 그가 설립한 대학의 건학이념을 ‘홍익인간’으로 정한 사실과 그 지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독립운동가였던 범정 장형은 신민회 시절부터 8.15 이후까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활동한 인물이었다.⁹⁾ 그는 김구 정치사상의 계승자로 인식되고 있다.¹⁰⁾ 장형은 환국 직후 임시정

1) 민립대학설립운동에 대해서는 孫仁銖, 「朝鮮民立大學 設立에 關한 研究」, 『教育學研究』 5: 1, 한국교육학회, 1967; 金鎬逸, 「日帝下 民立大學設立運動에 對한 一考察」, 『中央史論』 1, 중앙사학연구소, 1972; 이명화, 「民立大學 設立運動의 背景과 性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등 참조.

2) 김삼웅,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211~215쪽.

3) 김병태, 「농지개혁의 평가와 전망」,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44~45쪽. 농지개혁의 실시 결과 1952년부터 1954년 사이에 14개의 각종 대학이 만들어지고 학생수는 4만여 명이 증가했다.

4)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75~78쪽.

5) ‘대학관’은 ‘수업연한 2개년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정규대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대학정도의 기관’이었다(『조선일보』, 『경향신문』 1946.12. 3, 「문교부, 교육계획 새로 수립 입안」). 국민대학관 설립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이 대표적이다. 趙東杰, 「臨政요인의 국민의 대학 설립」, 『韓國近現代史의 理解와 論理』, 지식산업사, 1998; 張錫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과 민족대학 설립—국민대학의 설립을 중심으로—」, 『忠北史學』 11·12합집, 충북대사학회, 2000.

6) 우리 민족사에서 민족 구난의 상징적 존재인 단군을 부각시켜 민족의 위난을 극복코자 했던 우리 민족의 일반적 정서를 가리킨다. 독립운동시기에는 대종교로 표출되었다. 이를 ‘단군구국론’이라고 칭하는 학자도 있다(김동환, 「제2장 대종교의 독립운동」, 『종교계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44쪽).

7) 대종교는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광화된 민족 종교인만큼 만주로 이전한 다음 만주로 망명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대종교의 신도가 되었다. 朴杰淳, 『국학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17쪽.

8) 단국과 홍익대학은 공통적으로 ‘홍익인간’을 건학이념으로 표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창학정신은 각각 구국, 자주, 자립(단국)과 자주, 창조, 협동(홍익)으로 특성화하였다.

부가 추진한 국민대학설립기성회에 독립운동계를 대표하는 이사로서 참여하여 국민대학관 설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¹¹⁾ 그뿐 아니라, 김구가 1947년 3월에 설립한 建國實踐員養成所의 이사장으로서 그 운영과 강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¹²⁾ 이와 같이 김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장형의 건학이념을 검토하는 것은 임시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민족교육의 방향성을 유추하고, 홍익인간 교육이념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15 이후 교육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은 장형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정부 수립 이후 문교당국에서도 그것을 교육이념으로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그 기초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표방한 교육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은 겉으로 표방한 것과는 달리 반공주의를 앞세운 독재정권을 지탱하기 위한 반민족적 반민주적 지배정치의 이론적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론이다.¹³⁾

사상을 포함한 커다란 의미에서의 전통문화는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는가에 따라서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세력들이 그것을 오용한다고 해서 전통문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익인간’으로 대변되어온 단군민족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볼 때 단군민족주의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신무장의 배경으로 등장하곤 하였다는 점, 특히 임시정부가 국정운영의 이념으로 정립한 삼균주의의 근거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장형의 단군민족주의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전통문화의 미래지향적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장형의 ‘단국’ 교명 제정과 관련된 두 시각

1. 교명 제정의 진의와 관련된 비판적 시각의 대두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장형의 꿈은 오래된 것이었다. 1908년 무렵부터 실력양성을 역설한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 감명을 받은 후, 청년들에게 높은 지식을 가르쳐 이 나라를 세계 일등 국가로 만들기 위한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단국대학을 설립한 동기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였다.¹⁴⁾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8.15 이후

9) 장형과 관련된 연구성과로는 韓詩俊,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단국대학교」, 『東洋學』 4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朴性淳, 「梵亭 張炯의 獨立運動과 그 位相」, 『東洋學』 5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3; 한시준, 「단국대학의 설립 정신과 정체성」, 『동양학』 5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3; 박성순, 「환국 이후 범정 장형의 사회교육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박성순, 「梵亭 張炯의 滿洲에서의 獨立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79,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등이 있다.

10) 한시준, 위의 글, 2013, 139쪽. 그리고 당시 장형을 지켜봤던 후학들은 ‘독립운동사적으로 살펴볼 때 범정 선생은 백범 조직의 직계였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梵亭惠堂紀念事業會, 『梵亭言行錄』, 檀國人會, 1986, 582쪽.

11) 60년사편찬위원회, 『국민대학교60년사』, 국민대학교, 2007, 32·35쪽.

12) 이흥구, 「해방 후 백범 김구의 建國實踐員養成所의 설립과 운영」,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6, 백범학술원, 2008.

13) 권태익·정용욱, 「근·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특강』, 2008(개정신판), 231~232쪽.

14) 박성순, 위의 글, 『東洋學』 53, 111쪽.

민주에서 돌아와 보니, 일제 때의 전문학교들이 명칭만 대학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학을 세워야겠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¹⁵⁾

그리하여 장형은 단국대학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김구 주석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윤봉길·이봉창 의사 등을 양성한 것처럼, 나도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¹⁶⁾ 게다가 환국 직후 김구가 장형에게 정치보다는 육영에 관계하는 편이 국가를 위해서 유익하겠다고 하면서 청년교육을 당부하였다고도 한다.¹⁷⁾ 장형은 김구가 설립한 건국실천원양성소의 이사장으로서 그 운영을 맡았고, 김구 또한 단국대 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줄 정도로 두 사람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¹⁸⁾

장형은 단국대학을 설립하면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교육이념으로 설정하였다. 『단국대학교50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㉔ 단국을 교명으로 정한 것은 단일민족으로 조국과 민족을 지켜나가야 할 민족주의적 사명감을 일깨우며, 홍익인간 정신을 교육의 바탕으로 삼아 애국·애족하는 참다운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㉕ 우리 대학의 교명이 檀國이라고 명명된 것은 檀木之下에 강림하신 王儉께서 개국한 우리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며, 救國·自主·自立을 창학정신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教育立國과 主權擁立 및 自立生存體制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해 나간다는 주체적 정신과 의의를 말하는 것이다.²⁰⁾

위의 기술을 정리해 보면, ‘단국’으로 교명을 정한 뜻은 단군민족주의에 근거하여 ‘홍익인간’의 이상을 구현하고, 구국·자주·자립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에서 천신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세계에 내려온 취지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에서 비롯하였다. 단군이 수록된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는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나왔다. 대중교는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거의 빼앗긴 대한제국 말에 세워졌다. 이후 대중교는 무장독립투쟁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나라가 위급할 때 단군이 강조된 것은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또한 독립 한국의 치국책임 「건국강령」에서 건국정신이 홍익인간에 있음을 명시하였다.²¹⁾

15) 박성순, 앞의 글, 『한국근현대사연구』 67, 850쪽.

16) 梵亭惠堂紀念事業會, 앞의 책, 187쪽.

17) 교사편찬위원회, 『단국대학교50년사(상)』, 단국대출판부, 1997, 95쪽.

18) 김구는 1948년 1월 종로구 내수동에 있는 장형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던 단국대 학생들에게 애국애족의 기풍을 가질 것에 대한 훈화를 하였고, 그해 6월 25일에는 단국대 전문부 제1회 졸업식에 참석해서 직접 축사를 해주었다. 梵亭惠堂紀念事業會, 앞의 책, 156쪽; 『專門部政治科第一回卒業記念앨범』, 檀國大學, 4281. 김구와 단국대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시준, 앞의 글, 2010 참조.

19) 교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9쪽.

20) 교사편찬위원회, 위 책, 103쪽.

21)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99~102쪽.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장형이 ‘홍익인간’을 건학이념으로 내세운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시준은 장형이 단군을 강조한 것은 단군 그 자체보다는 민족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를 건학이념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국대학을 설립한 계기나 연원을 단군에서 찾는 것은 설립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장형이 설립하고자 한 대학은 임시정부와 김구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 한 데 있었고, ‘단국’이란 교명은 임시정부와 김구가 추진하고 있던 통일국가수립을 지지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²²⁾

전통문화의 현재적 계승의식에 무게를 둔 한시준의 주장은, 비교를 통한 강조의 문법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자칫 단국대학의 건학이념이 단군숭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자 대중교사를 전공하는 김동환이 즉각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근자에 일각에서 단대의 설립이념을 단군이나 홍익인간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설립에 참여한 인물들의 정신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형이 항일투쟁시기부터 대중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던 인물로서, 1963년에 이미 正敎의 敎秩에 올라 홍익대학의 이흥수와 함께 대중교 원로원 참의를 맡았다는 점, 단국대학의 교가에 ‘단군성조’의 얼을 강조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단국’이라는 교명은 단군 숭배사상에 입각하여 지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³⁾

2. 교명 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억들

한시준이 예시한 『단국대학교50년사』의 자료에는 ‘단국’이라는 교명이 제정된 배경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국호야 어찌되었든 檀君聖祖의 한 자손으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며, 이 땅을 지키고, 이 나라를 번영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야. 이 땅을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며, 그 올바른 교육이란 곧 단군성조의 弘益人間 정신이라 믿으며, 그 정신은 단군으로부터 이어오는 하나의 핏줄의식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 나라 후손들의 가슴속에 심어서 나라사랑과 겨레사랑의 의욕을 고취해야 됨으로 교명을 단국대학이라 명명하고, 단군의 건국이념을 곧 建校理念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일세.²⁴⁾

㉡ 내가 어린 나이였지만 나의 선친과 장도빈 선생님, 그리고 뜻을 같이했던 분들이 모여 학교이름

22) 한시준, 앞의 글, 2010, 322쪽.

23) 김동환, 『실천적인 민족주의 역사가 장도빈』, 역사공간, 2013, 107쪽.

24) 교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8쪽.

을 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결국 國祖 檀君의 弘益人間을 교육이념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군에서 ‘檀’ 자를 따고 애국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애국에서 ‘國’ 자를 따서 ‘檀國’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어요.²⁵⁾

한시준의 설명에 의하면, 예문 ㉔는 학교 설립의 취지와 관련하여 단대 동문인 趙東奎가 장형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고, 예문 ㉕는 교명 제정 당시를 직접 목격한 장형의 아들인 張忠植의 증언이다. 한시준은 위 인용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예문 ㉔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우리가 한 핏줄이라는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애국 애족적 행동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 예문 ㉕는 기술된 그 내용 자체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로서 교명 제정 당사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염원은 결국 당시 현실에서 독립운동의 최종 목적에 해당하는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⁶⁾ 8.15 이후의 분단현실에서 당시의 시대정신이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것을 교명에 담아 구현코자 했던 장형의 시대정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단국대학 설립 직후인 1948년도 3월 1일자 『단대학생신문』에서 장형은 학교 운영방침으로서 ‘단국대학의 설립이 분단의 민족적 실책을 반성하면서, 청년을 양성하고, 독립운동의 동지를 규합하여 완전한 자주독립을 달성하려는 포부에서 결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²⁷⁾ 이는 한시준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㉔가 장형의 단군숭배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말하기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㉕의 에피소드와 관련해서도 김동환에 의하면, 교명 제정 당시 참여하였던 장도빈이 애초에 ‘단국대학’으로 명명할 것을 주장할 정도로 단군숭배의식이 높았지만, 그 명칭이 너무 국수적인 느낌이 크다는 견해가 있어 단국대학으로 그 톤을 낮추었다는 것이다. 장도빈은 당시 대종교의 교주였던 윤세복이 방문하면 늘 형님처럼 따랐을 만큼 단군숭배의식이 남달랐다고 한다.²⁸⁾

장도빈은 장형과는 보성전문학교 법과 동기였고, 신민회 활동을 함께 한 인물이었다. 이런 인연으로 장형이 단국대학을 설립한 후 그를 초대 학장으로 초빙하였다.²⁹⁾ 한편 장도빈은 단국대학의 교가를 작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7년부터 1963년 9월 노환으로 작고할 때까지 교수, 명예교수의 신분으로 단국대학에서 한국독립운동사와 건국사 등과 같은 민족주의사학 교육에 매진하였다.³⁰⁾ 장형은 장도빈과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초창기부터 대종교도의 신분으로 활동하였으므로,³¹⁾ 단군숭배에 관련한 장형

25) 교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99쪽.

26) 당시 장형이 함께 교명 제정을 의논한 인물은 김구를 비롯하여 보성전문학교 시절부터 친구이면서 동료였던 민족주의 사학자 장도빈, 민족주의 사학자이면서 언론인이었던 안재홍, 대종교의 안호상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었다. 한시준, 앞의 글, 2013, 138쪽.

27) 『檀大學生新聞』 1948. 3. 1, 「檀國大學을 세우고 나서 - 國家民族의 再興에 寄與.」.

28) 김동환, 앞의 책, 107쪽.

29) 『檀大新聞』, 1957.11.3.

30) 박성순, 앞의 글, 『한국근현대사연구』 67, 847쪽.

31) 박성순, 앞의 글, 『한국근현대사연구』 79, 113쪽.

도 장도빈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지 않았을까 싶다.

한시준이 인용한 『단국대학교50년사』 부분에는 미처 소개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전한다. 우국지사들이 일제 하에서 민족정신을 귀일시키는 구심점으로 대종교를 믿어왔고, 장형도 25세 되던 1914년에 입교하여 나중에 원효참의라는 직위에 올랐다는 점, 뿐만 아니라 단군을 숭모하는 정신이 투철하여 1948년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에서 단군한배검의 천제를 올리는 자리에 안호상, 명제세 등과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형에게 들었다는 동문 李麟宰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곳 마니산은 국조 단군성조를 기리는 기념적인 제단이 있는 곳이다. 홍익인간의 개국사상이 이 마니산에서 숨쉬고 있다. 개인적으로 각자는 자기 조상을 모실 줄 아는 것처럼 배달민족으로서 민족적 뿌리를 기리는 일이야말로 자연스럽고 또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³²⁾

이는 ‘민족의 뿌리’로서 단군을 대하는 장형의 입장이 뚜렷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결국 장형에게 있어서 민족의 뿌리로서 단군숭배와, 민족통일운동의 사상적 근거로서 단군정신의 계승이라는 두 가지 문제는 선택과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통섭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중에서도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굳이 선택하려면, 홍익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구현할 것인지라고 하는 실천의 문제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역대 정권에 의해서 교육이념으로 제정된 ‘홍익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해왔는가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Ⅲ. 문교당국의 ‘홍익인간’ 교육이념 제정과 왜곡

1. 미군정기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제정과정

‘홍익인간’이 한국 교육의 이념으로 채택된 것은 조선교육심의회에서였다. 이 조직은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1945년 11월에 교육계와 학계 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총 10개의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교육이념 및 제도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1945년 9월에 구성된 한국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의 집행기관 격이라면, 이 기관은 교육의회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³³⁾

조선교육심의회 10개 분과 중 교육이념을 다룬 것은 제1분과였다. 제1분과의 위원장은 안재홍이었으며, 한국인 위원은 하경덕, 백낙준, 김활란, 홍정식, 정인보 등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친미적 인사들이었지만, 안재홍과 정인보가 국학자로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안재홍은 1945년 12월 5일에 열린 조선교육심의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처음 보고하였다. “홍익인간의 건국 이상을 토대로 인격이 완전

32) 교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9쪽.

33) 柳東熙, 『美軍政期 大學設立에 관한 研究』, 明知大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1, 40쪽.

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公民을 양성함을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함”이라는 것이었다.³⁴⁾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다. 백남운과 같은 좌익계 인사들은 홍익인간이 신화를 토대로 한 봉건적인 관념이며 ‘민주 건국’이라는 시대 과제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 유학파들도 홍익인간 교육이념에 반대하였다. 미군정 학무국의 교육개혁 행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오천석은 홍익인간 이념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정서를 고취하여 전체주의나 독재정치를 뒷받침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조선교육심의회는 교육제도 분과위원으로 일본과 미국 유학 경험이 있던 장이욱, 사범교육 분과위원으로 일본에 유학한 이인기 등도 비슷한 논리로 반대하였다.³⁵⁾

그렇지만 이런 반대보다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하는 데 큰 장애가 된 것은 미군정이었다. 그것은 한국사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 속에 담긴 민족주의 교육보다는 ‘민주주의 공민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일방적으로 우선시하였다. 그것은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 속에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의 교육이 민족의 자주성이나 독립성보다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미국식 교육방법과 이론을 한국 교육에 도입하여 한반도를 동아시아에서 반공의 보루로 만들려는 목적 때문이었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미 군정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8.15 이후 단군은 되찾은 나라, 되찾은 역사의 상징이라는 당시의 여론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7월 7일 국회 제59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禮紀 연호 사용 문제와 함께 다루어진 것도 그러한 당시의 여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⁷⁾ 그렇기 때문에 좌파적 성향의 백남운을 제외하고는 대개 한민당과 가까운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한 조선교육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대개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교육개혁의 주체였다고 평가받고 있다.³⁸⁾

2. 일민주의의 대두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법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홍익인간’은 다시 한 번 문제가 되었다. 국회 문교사회위원회 교육법 심의과정에서 홍익인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었다.³⁹⁾ 문교부측이 전체심의회에

34) 『東亞日報』 1945.12.20, 「교육심의회, 교육이념 심의」.

35) 김한중, 앞의 책, 105쪽.

36) 柳東熙, 앞의 글, 59쪽. 1946년 6월에 만들어진 미 국무성의 한 정책보고서에서도 남한에서의 교육개혁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소련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교육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한국에서의 미국의 기본 정책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여,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 교육정책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Memorandum b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Occupied Areas Hilldring to the Operation Division, War Department, FRUS, 1946, p.694; 柳東熙, 위의 글, 38쪽 재인용.

37) 『서울신문』 1948. 9. 8, 「제1회 59차 국회본회의, 禮紀年號사용 결의안을 접수하고 반민족행위처벌법안 통과」.

38) 鄭泰秀, 『광복3년 한국교육법제사』, 예지가, 1995;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민영사, 1992.

39) 법률 심의를 맡은 국회위원들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문교사회위원장인 이영준의 말처럼

서 ‘홍익인간’을 넣자고 하면서 재의 끝에 홍익인간이 채택되었다.⁴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법 심의 전체회의에서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채택된 것은 초대 문교부장관이던 안호상의 의지 때문이었다.⁴¹⁾

친미적 성향의 조선교육위원회의 구성원도 아니며 미군정 교육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안호상이 문교부장관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정치적 세력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이 김성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족청계의 이범석과 제휴하면서, 이범석과 가까웠던 안호상이 이승만의 눈에 띄게 되었다는 점, 둘째 안호상이 주장했던 一民主義가 이승만에게 크게 어필했다는 점이다. 안호상의 일민주의는 좌우의 이념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단지 ‘민족’을 표방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승만 통치집단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⁴²⁾

국회 내에서 친 이승만 그룹이 이승만의 일민정치를 보조한다는 목적으로 ‘일민클럽’이라는 조직을 만들 정도였다. 그러나 일민주의는 ‘민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의 민족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몰역사적인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우익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실제 일민주의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신라의 화백제도에서 찾으려 했지만, 화백제도가 소수 귀족층만의 합의형식이라는 특권계급적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상기하면, 일민주의는 비민주성과 몰역사성을 띠고 있었다.⁴³⁾

더욱이 안호상이 주장한 민주·민족 교육은 분단 순응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뜻에서의 민주·민족 교육이었고, 그 실체는 전체주의적 또는 획일주의적 경향마저 짙게 띠고 있었다. 안호상은 1949년 3월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여 스스로가 단장으로 취임하였고, 이승만을 총재로 추대하였다. 학도호국단은 민주학원의 학생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이승만 정권을 지키기 위한 ‘護權團’으로 기능하였다.⁴⁴⁾ 학도호국단의 목적은 일민주의 보급을 통한 학생들의 사상통제, 학원내 좌익세력의 책동 분쇄였다.⁴⁵⁾

그러나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을 뽑는 5.30 총선에서 친이승만계인 독촉계와 서북계가 선거에서 탈락하고 오히려 남한의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서 이범석과 이승만의 제휴관계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이범석의 사상적·실천적 동지였던 안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저 역사성을 가진 우리의 고유한 문구 정도로 이해하기도 했다. 백낙준, 오천석, 유진오, 장이욱, 현상윤 5인으로 구성된 교육법 기초위원회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 대신 ‘인류공영’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 40) 이로써 1949년 12월 31일 공포된 교육법 1조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具有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봉사하여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김한중, 앞의 책, 107~108쪽.
- 41) 8.15 직후 미군정은 학무국을 두고 자신들과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조선교육위원회, 조선교육심의회, 미국교육원조추진심의회 등의 각종 교육 자문 기구를 구성하였다. 조선교육위원회 구성원들은 미국이나 일본유학파로서 종교는 기독교이면서 한민당 출신의 인사로 채워졌다. 학무국 조직도 학무국장에 유억겸, 차장에 오천석, 편수 부문에 최현배와 장지영, 사회교육 부문에 최승만 등이 임명되었는데, 이중 오천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민당 소속이었다.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대출판부, 1996, 431쪽;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선인, 2008, 414쪽.
- 42) 한준상·정미숙,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345쪽.
- 43) 정미숙, 「단정수립 후 한국전쟁기까지의 교육」, 『중등우리교육』 11, 중등우리교육, 1991, 123쪽; 서중석, 「이승만정부 초기의 일민주의」,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1997.
- 44) 성내운, 『분단시대의 민족교육』, 학민사, 1985, 110쪽.
- 45) 정미숙, 앞의 글, 124쪽.

호상 장관은 문교부장관에서 해임되었다. 이는 이승만의 정치적 기술로 보아 당연한 순서였을 뿐이었다.⁴⁶⁾ 안호상이 물러난 후 문교부장관은 이승만의 원래 구도대로 미국계 인사인 백낙준으로 충원되었다.⁴⁷⁾ 그 결과 일민주의 대신 ‘민주주의 교육’ 이념이 등장했고, 그 이름 아래 반공이데올로기가 교육내용으로 강하게 수용되기 시작했다.⁴⁸⁾

그러나 비록 일민주의가 몰락하였지만, 1968년 박정희 정부는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홍익인간을 그 이념으로 삼고자 하였다. 결국 확정된 헌장 내용은 ‘홍익인간의 정신’ 대신 좀 더 보편적 언어인 ‘조상의 빛난 얼’로 대체되었으나, 교육법에는 변함없이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유지되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심의회를 구성하여 1986년 4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교육이념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기본은 홍익인간이었다. 1997년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었지만, 홍익인간은 그대로 교육이념으로 남게 되었다.⁴⁹⁾

3. 독재정권의 오용

이승만 정권은 초기에 일민주의를 내건 적이 있고,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했으며, 또 평화선 설정과 같이 극한적 반일민족주의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고취시킨 민족주의는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고 그의 통치이념이 가진 극우반공주의적 성격을 호도하는 장치에 불과했다.⁵⁰⁾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가 선전의 차원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의존했던 것은 ‘민족’이었지만, 반민특위 활동이나 1950년대 조봉암과 진보당의 활동같이 민족주의를 동력으로 하는 정치활동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공산주의를 이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공산주의와 동일시되어 탄압을 받았다. 1950년대 후반에는 민족주의를 불온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해방운동’은 물론이고, ‘민족주의’ 또는 ‘민족운동’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⁵¹⁾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 정권은 4.19혁명 이후 고양된 민족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반공을 국시로 선언하여 혁신세력을 비롯한 통일운동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그리고 반공주의와 근대화 전략을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이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적극 활용하였다. 박정희 정권 때 타결된 한일협정은 미국이 6.25전쟁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추구한 한·미·일 지역통합전략의 완성을 의미했다.

박정희 정권이 수립된 뒤 미국 케네디 행정부가 한국에서 “4.19 이후 고양된 민족주의가 통일을 향한 열

46) 한준상·정미숙, 앞의 글, 346쪽.

47) 백낙준은 미국유학파로서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 의 핵심 구성원으로 미군정교육에 참여했고, 미국 교육이론 수업에 적극적이었다.

48) 한준상·정미숙, 위의 글, 347쪽.

49) 김한중, 앞의 책, 110쪽.

50) 이승만은 그가 표방한 민족주의와는 상반되게 반민족적, 반민주적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 서중석, 「이승만대 통령의 반일운동과 한국민족주의」, 『人文科學』 30,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51) 권태익·정용욱, 「근·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특강』, 2008(개정판), 231쪽.

망으로 발전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대신 후진국 근대화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민족을 내세운 국가주의·근대화 지상주의와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관계를 생각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⁵²⁾

이승만에서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에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민족주의를 표방한 국가주의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에 사회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전개된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홍익인간’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현실과 과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런 주장은 1988년부터 1989년까지 추진된 교육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반영되었다.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의 교육법 개정안 중에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홍익인간이 독립운동기에는 의미있는 이념이지만, 통일과 민주화 등이 요구되는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의 과제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각 정당과 관련 단체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교육법 개정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히 홍익인간도 그대로 교육이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⁵³⁾

승자독식과 무한경쟁만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시대에 이타정신을 강조하는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어울리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의 야당들도 홍익인간의 참된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들이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제외시키고자 했던 것은, 해방 이후부터 지속된 장기기간의 독재정권하에서 ‘홍익인간’이 반공이데올로기 하의 사상탄압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근거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홍익인간’의 이념이 8.15 이후에 한 번도 민족통일과 민주주의의 이념적 근거로 활용된 예는 없었을까? 그러한 예를 장형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V. 장형의 단군민족주의가 지닌 역사적 함의

1. 단군 숭배의식의 계승

장형이 교명을 단국으로 정하고,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표방한 것은 기본적으로 단군 숭배의식을 계승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장형은 1948년 10월 3일 안호상·명제세 및 기타 정부 각료들과 함께 강화도 마니산을 답사하였다.⁵⁴⁾ 이 모임은 오세창을 비롯한 100여 명의 발기로 檀君聖蹟護維會의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52) 권태익·정용욱, 위의 글, 232쪽. 박정희 정권은 4.19혁명으로 쓰러진 제1공화국의 반민주·민족적 교육체계를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진일보시켰다. 박정희 정권은 민족 분단의 평화적 극복은 커녕 반공을 으뜸가는 國是로 삼음으로써 제1공화국과 닮을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 視學을 역임한 친일파를 문교부장관까지 등용하여 더 일층 반공교육을 강화하였다. 더군다나 일본과의 국교 재개가 굴욕적으로 추진되었고, 일제가 명치유신하에 제정했던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 4년 후에는 독재정치의 대명사가 된 유신체제가 들어섰다. 성내운, 앞의 책, 119·122쪽.

53) 김한중, 앞의 책, 111~113쪽.

54) 梵亭惠堂紀念事業會, 앞의 책, 118쪽.

호유회 발기인대회는 1949년 5월 7일 풍문여중에서 개최되었다. 그 준비위원들은 장형과 가까운 사이였던 신익희·조소앙·안재홍·김성수·유림·안호상 등이었다.⁵⁵⁾

교육이념으로서 장형의 단군민족주의는 임정의 건국강령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육이념으로 제정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1941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포하면서, 삼균주의에 입각한 교육이념을 弘益人間과 理化世界에 두었다.⁵⁶⁾

조소앙이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에 개최된 임정 국무위원회에서 채택 선포되었다. 1항은 대한민국이 단일한 언어, 국토, 주권, 경제, 문화를 가진 민족국가임을 명시하였고, 2항에서 삼균제도의 건국정신은 ‘先民의 首尾均平位 興邦保太平과 弘益人間 理化世界에 근거를 둔 민족의 최고 공리’라고 하였다. 즉 삼균제도의 건국강령은 고조선 시대 이래의 均平 제도와 홍익인간 사상에 토대하였음을 밝힌 것이다.⁵⁷⁾

개교 10주년인 1957년에 장형은 단국대학이 민족의 전통과 혼을 지키는 민족사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학교운영 방침을 재차 천명하였다. 그리고 국조 단군을 제사하는 國祖殿과 순국선열 奉安廟祠를 지어, 앞으로 단군과 순국선열을 제사하겠다고 공표하였다.⁵⁸⁾ 실제로 그해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하여 장형은 단국대 한남동캠퍼스 본관 뒤편에 國祖殿과 함께 순국선열 奉安廟祠의 定礎式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운동가인 李甲成과 李仁을 비롯하여 단국대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장형은 이 자리에서 “국조 단군의 평화적이며 진취적인 홍익인간의 이상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⁵⁹⁾ 그러나 국조전과 순국선열 봉안모사를 조성해 독립정신을 강조하려던 장형의 시도는 민족의식의 착근을 우상 숭배로 규정한 기독교계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되었다. 이승만 정권시기는 기독교 정당이라 불리던 자유당의 부패가 극에 달하던 무렵이었고, 이를 의지처 삼아 기독교 세력은 반민족적 성향을 띤 이승만 정권의 전위대와 같이 활동하였다.⁶⁰⁾

장형은 김구를 도우면서 건국실천원양성소를⁶¹⁾ 운영하였는데, 이것도 대종교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실의 이사장을 맡았던 장형은 독립운동 시기에 대종교도로서 활동한 인물이었다.⁶²⁾ 현재 자료상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1948년 건실 『第5期修業生名簿』에 의하면, 건실은 이사장에 장형, 명예소장 李承晚, 소장 金九, 부소장 嚴恒燮으로 구성되었다. 장형은 건실 설립 이후 사실상 그 운영비와 강의를 직접 담당하였다.⁶³⁾

55) 『東亞日報』 1949. 5. 4, 「檀君聖蹟護維會 준비위원, 강화도의 摩利天壇 답사」.

56)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민영사, 1992, 293쪽.

57)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2015, 137쪽. 조소앙은 1919년 3월 2일에 기초한 대한독립의군부 명의를 「대한독립선언서」에서부터 단군숭배 의식을 담아내었다. 단군 숭배의 민족주의적 사고와 사해동포 사상이라는 세계주의적 사고가 결합되어 한국의 독립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했던 것이다. 김기승, 위의 책, 59쪽.

58) 『檀大學報』 1957. 11. 3, 「檀大는 이렇게 자라왔다. 本社主催 設立者 座談會」.

59) 『檀大新聞』 1957. 10. 11, 「國祖殿 定礎式을 舉行, 檀君聖業을 欽慕, 張理事長 特志로 建立」.

60)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 3, 인물과사상사, 2004, 54~58쪽.

61) 김구는 자주적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1947년 3월 20일 건실을 개소하였다.

62) 박성순, 앞의 글, 『한국근현대사연구』 79, 112~113쪽.

1949년 김구 서거 이후, 건실은 9월 25일 홍익대로 흡수되었다. 홍익대는 1946년 홍문대학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운영난에 봉착하자 ‘홍문대학관 관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사실상 대종교 인사들이 경영에 참여하여 학교를 재설립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교명이 ‘홍익’으로 바뀐 것도 이때의 일이다. 그리하여 1949년 6월 27일에 4년제 홍익대학이 인가되었다. 김구 사후 공식인 건실 소장 자리에는 초대 홍익대 학장이자 한글학자인 鄭烈模⁶⁴⁾가 취임하였다. 사실상 건실의 운영이 대종교 인사들에 의해서 인수인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건실은 194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해체되었다.⁶⁵⁾ 홍익대학의 초대학장인 정열모가 1949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김구의 남북협상 참여를 지지하였고, 1949년 5월에는 민족자주연맹 서울시연맹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던 사실이 구속의 빌미가 되었다.

장형과 정열모는 김구와 임시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세력이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두 사람이 설립, 운영한 학교의 이름이 단국과 홍익이라는 점 등은 해방 직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세력의 부지와 독립정신의 계승이라는 문제가 대종교 인사들을 주축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장형은 김구의 정치사상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단국대학의 설립취지서에서 홍익인간의 건국정신을 계승하고, 광복을 선도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文化士官을 양성하겠다고 표명하였다.⁶⁶⁾ 이 부분은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文化國家論을 주장한 김구의 사상과 일치한다.⁶⁷⁾ 김구는 현재 인류의 불행은 물질 부족이라기보다는, 仁義와 자비와 사랑으로 대변되는 종교적 교의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인류사회의 모순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이 홍익인간이라는 국조 단군의 이상을 자각해서 진정한 세계 평화를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설교하였다.⁶⁸⁾

2. 시대정신을 추수한 장형의 단군민족주의

‘8.15’는 일제식민지 상태에서 곧바로 분단시대로 이어졌다.⁶⁹⁾ 따라서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63) 梵亭惠堂紀念事業會, 앞의 책, 628쪽. 운영비뿐만 아니라 장형은 건실에서 國民思想이란 과목도 강의하였다. 그리고 단국대학의 교수진을 건실의 교수진으로도 활용하였다. 단국대 학장이던 張道斌에게 국사를, 부학장이던 金正實에게 헌법을, 교수였던 丁洛鎭에게는 민법을 강의하게 하였다. 建國實踐員養成所, 『第5期修業生名簿』, 大韓民國 30년 12월 19일.

64) 정열모는 1922년 4월 대종교에 입교하여, 해방 후인 1946년 4월 이후 대종교 총본사 전리, 전강 등 교직을 역임하였고, 1950년에는 원로원 참의에 등극하였다.

65) 李弘求, 앞의 글, 338쪽.

66) 『檀大學生新聞』 1948. 3. 1, 「檀國大學 設立趣旨書」, “단국대학은……弘益人間的 건국정신을, 여기에 광복하는 선도자와 창조자적 역할을 메고나갈 文化士官을 양성하여, 조선과 세계의 부흥을 위하여 동원되는 朝鮮에 배속시키는 사업의 원천지가 되겠다는 자부와 萬里鵬程에 오르는 배다.”

67) 朴正愛, 「白凡의 政治思想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52~53쪽.

68) 김구,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金九自敘傳 白凡逸志』, 國土院, 1947, 16쪽.

69) 8.15 이후를 분단시대로 보는 논의는 강만길에 의해서 점화되었다(강만길, 『分斷時代의 歷史認識』, 창작과 비평사, 1978). 박찬승이 그것을 수용하여 개설서에서 “한반도 전체를 두고 현대사를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현대사를 규정해 온 제일 커다란 힘이 바로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사실 때문이며, 역사학계에서는 한국의 현대사를 ‘분단시대사’라고 부른다”고 정리하였다(박찬승,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강의』, 한울, 2013, 301쪽). 김희곤도 8.15를 지칭하는 ‘해방’과 ‘광복’이 정확하게 그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김희곤, 「독립운동과 민족통일」, 『한국근현대사연구』 6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97쪽).

중요한 민족적 과제로 대두하였다. 8.15 이후에도 독립운동이 현재진행형의 성격을 띠게 된 배경이었다.⁷⁰⁾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의 독재정치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정착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민족통일과 민주주의 정착이 한국현대사의 중요과제가 된 것이다.

장형은 단군민족주의를 당대의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신적 근거로 활용코자 하였다. 장형의 단군 숭배의식은 안호상 등과 비슷하였지만, 안호상이 일민주의라는 전체주의로 경도된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선화하였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열악해진 민족운동의 환경 속에서도 줄기차게 독립정신의 계승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자유와 평등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했던 독립정신은 민주주의이념과 소통되었고, 열강들의 개입으로 분단된 민족의 통일국가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장형은 이사장 시절 교무회의 석상에서 교수들에게 독립정신을 강조하고, 독립운동사를 교육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독립정신을 헤아리지 못하는 교육은 목적이 없는 활동이므로, 여러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독립운동사를 읽으시고, 학생들로 하여금 냇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쳐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⁷¹⁾ 건학이념으로 홍익인간을 표방하였고, 교육내용으로서 독립정신의 확립을 주문한 것은 단군민족주의가 곧 독립정신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장형은 전국통일학생총연맹 활동을 이끌었다. 1948년 9월 결성된 이 단체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비롯하여 김구·김규식·안재홍·명제세·엄항섭·이청천 등 당시의 생존 독립운동가들을 후원인사로 망라하였다. 장형은 직접지도위원의 자격으로 사실상 이 단체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이 단체가 표방한 목적은 남북통일과 조국광복이었다.⁷²⁾ 그러나 이승만의 주도로 대한청년단이 결성되면서 대부분의 학생·청년조직이 해소됨에 따라 전국통일학생총연맹의 활동도 중지되었다.

1956년 장형은 대한순국충렬기념사업협회를 설립하여 상임부위원장으로 실무를 담당하였다. 위원장은 부통령 咸台永, 위원은 李甲成·金法麟 등 자신과 인연이 깊은 독립운동가들이었다. 대한순국충렬기념사업협회는 민영환·이준·안중근·윤봉길·이봉창 등 여러 의사들의 동상을 건립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⁷³⁾ 1959년 5월에는 생존 독립운동가 30명을 초청하여 단국대학에서 애국지사위안회를 개최하고, 단국대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⁷⁴⁾

1961년 9월 25일에는 장형의 주선으로 단국대학에서 ‘獨立鬪士親睦會’가 결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63년 3월 15일 ‘獨立鬪士子女獎學會’가 창립되었다. 장형은 그해 3월 1일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훈장(현 독립장)을 수상한 후 연금 전액을 선불로 받아 장학회의 기금으로 희사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투사 자녀들 15명이 장학금 수혜를 입었다.⁷⁵⁾ 장형이 이와 같이 생존 독립운동가 및 유자녀들의 후원에 몰심양면으로 노력을 기

70) 박길순, 「3.1운동과 국내 독립운동」, 『東洋學』 4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276쪽.

71) 梵亭惠堂紀念事業會, 앞의 책, 48쪽.

72) 『漢城日報』 1948. 8. 20, 「4개 학생단체가 통합하여 전국통일학생총연맹 결성」.

73) 『京鄉新聞』 1956. 2. 21, 「안중근의사 동상 건립, 대한순국충렬기념회서」.

74) 『檀大學報』 1959. 5. 11, 「愛國志士慰安會, 三十抗日鬪士가 한 자리에, 老顔에 洽足한 미소를 不禁」.

75) 『檀大新聞』 1963. 6. 21, 「巨額을 喜捨, ‘獨立鬪士子女獎學會’에, 이미 15名의 學生이 혜택입어, 本大學 設立者 張炯 先生」.

올인 것은 김구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경교장에서 생활하던 김구는 엄항섭을 장형에게 보내서 형편이 어려운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원호를 부탁하였고, 장형이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하였다.⁷⁶⁾

독립정신 계승활동 중에 장형이 강조한 것은 민족통일과 민주주의의 완성이었다. 독립투사친목회의 결성이 통일조국을 위하여 여생을 바칠 것을 각오하자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임을 밝힌 장형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완전 독립이 될 때까지 자유 조국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장형이 밝힌 ‘완전독립’은 남북통일을, ‘자유조국’은 민주주의의 확립을 가리키는 것이었다.⁷⁷⁾

장형은 이승만의 반민족적 처사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가하였다. 제헌국회에서 구성한 반민특위를 해체시킨 것은 國基를 위태롭게 한 것이고, 친일파를 중용하고 독재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⁷⁸⁾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이 여론전을 위해서 총 30명의 저명인사들로 선거대책위원회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장형을 초빙하였을 때에도, 장형은 이를 피하지 않고 자유당 선거대책회의 석상에 나아가 “자유당이 공명선거를 앓는다면, 선거에서 이기고 당의 앞날이 죽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명선거를 해야 한다”는 믿음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 이후로는 자유당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⁷⁹⁾ 여론전에 골몰했던 자유당은 표면상 이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공명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보장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⁸⁰⁾

3. 민강회 활동과 단군민족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1960년 9월 4일 장형은 독립운동의 오랜 동지인 金弘壹과 함께 民強會를 설립하여 ‘민권신장’과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항일투쟁기에 王雄이라는 예명을 사용했던 김홍일은 한인에국단원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가 사용한 폭탄을 지원해준 인물이었다.⁸¹⁾ 해방 직후 한교사무처장에 임명되어 심양에 주둔할 때 장형에게 통행증을 만들어 주면서, 국내에 들어가 김구 선생을 도우라고 전언했던 인물이다.⁸²⁾ 정치에 입문해서 자유당에 대항하는 민주당 당수를 지낸 김홍일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삼선개헌과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민강회의 설립은 4.19 이후 증폭된 민족주의, 민주주의 운동의 발현이었다.⁸³⁾ 1960년 민강회 시국강연회

76) 梵亭惠堂紀念事業會, 앞의 책, 609쪽.

77) 『檀大新聞』 1961.10.11, 「獨立闘士親睦會, ‘舍心하여 餘生을 祖國에’ 張理事長 談, 李甲成翁 外 16名, 柳達永 本部長도 參席」.

78) 梵亭惠堂紀念事業會, 앞의 책, 119~120쪽.

79) 梵亭惠堂紀念事業會, 위의 책, 122쪽.

80) 『東亞日報』 1960. 2. 6, 「선전공세에 주력 자유당 선대위, 연석회의를 개최 공명선거주장을 채택」.

81) 김구, 『金九自敘傳 白凡逸志』, 국사원, 1947, 297쪽.

82) 한시준, 앞의 글, 2010, 313쪽.

83) 권태익·정용욱, 앞의 글, 231쪽. 4.19혁명 당시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정치가가 쿠바의 카스트로와 이집트의 나세르였다는 얘기는 1960년대 한국 지성계의 강렬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느끼게 한다. 이것은 4.19혁명의 정신사적 의의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차원보다 민족주의의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4.19혁명 이후 학생운동은 신생활운동 등 계몽운동적 차원에서 벗어나 한미행정협정,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으로 발전했고, 또 혁신세력과 연합하여 통일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는 6.25전쟁 이후 누적된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

당시 행사장 연단 좌우에는 ‘官僚主義와 反革命者를 打倒하자’, ‘民權強化로 政權鬪爭을 一掃하자’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부패한 관료와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4.19정신의 계승과 민권강화를 중시한 민강회의 설립취지를 잘 보여준다.⁸⁴⁾

4.19 혁명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인 장형은 1961년 구정(2.15)에 단대 학장, 이사진 및 교수들을 대동하고 낡은 4월혁명유족회 건물 2층 봉안소에 찾아가 4월 혁명 희생자 유가족 30여 명이 모여 초라하게 지내는 정 초 차례에 제수를 바치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4.19유족회 이사장 車明燮에게 약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새 봉안소를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⁸⁵⁾ 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4월 혁명 희생자 유가족들의 딱한 처지를 구원해 주었다.⁸⁶⁾

그러나 장형의 민강회 활동은 1961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단국대 주간부가 폐강되는 일 원인이 되었다.⁸⁷⁾ 이승만 정권의 독재체제를 비판했고, 이를 민주적으로 대체할 야당 지도자 장면을 후원하였으며, 또한 ‘반혁명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장도영 장군과 같은 평북 용천 출신에, 민강회를 조직하여 민주·민권 운동을 전개하던 장형을, 신속하게 자신들의 기반을 구축해야 했던 군사정권이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다.⁸⁸⁾

당시 대학평가 기준은 校地·校舍·教員·運動場·圖書의 5종목으로 나누어, 학교 시설능력이 학생 7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주간 4년제 대학으로 존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단국대 학의 시설능력이 699명 분에 해당한다는 억지스러운 평가결과를 내세워, 설립 직후부터 문교부 공인의 남한 내 20대 대학에 포함되었던 단국대 주간부를 폐강 조치하였다.⁸⁹⁾

장형의 의지와는 별도로 그의 견하이념이 학교 교육체계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실현되었는가는 지면을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념적 측면에 한정해서 고찰해보면, 8.15 이후 악화된 민족운동의 환경 속에서도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장형의 시대정신은 눈여겨볼직하다. 장형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한시준은 장형이 단군민족주의를 표방한 이유가 단군 숭배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통일민족국가 건설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민족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배경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전통문화의 핵심은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있다. ‘홍익인간’을 표방하는 단군민족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민족주의의 구심점으로서 단군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서 파생된 철학들은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장형의 단군민족주의는 반공을 앞세워 사상탄압에 앞장선 일민주의와는 달리 민주주의 정착과 민족통일의 시대적 과제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그것은 시대와의 불화 속에서 아직까지도 미완의 과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말이다.

로 간주되었다.

84) 『단국대학사진집』.

85) 『京鄕新聞』 1961. 2. 15, 「四月의 獅子'들에게 茶禮, 奉安所서 遺族 30餘名이」.

86) 『京鄕新聞』 1961. 4. 1, 「또 4월은 왔는데 아들 팔아 살기 싫어, 保證金 없어 賈房도 비울 판, 가난한 革命的 어머니」.

87) 장충식 이사장 인터뷰(2016.12.12. 단국대 이사장실)

88) 장충식, 『시대를 넘어 미래를 열다』, 노스보스, 2011, 35쪽.

89) 檀大四十年史編纂委員會, 『檀國大學校四十年史』, 단대출판부, 138쪽; 『東亞日報』 1947. 12. 16, 「幽靈學院을 一掃, 文敎部一般에 注意喚起」; 『獨立新聞』 1947. 12. 16, 「南鮮 定規大學은 二十校에 達」.

V. 맺음말

8.15 이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을 교명에 담은 대학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國民, 檀國, 國學, 建國, 東國, 弘益, 新興 등의 교명을 내건 대학들의 등장은 해방과 독립이라는 문명사적 자의식에 기반한 민족의식의 발현이었다. 특히 이들 중 여러 대학들이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이중에서 ‘弘益人間’을 건학이념으로 표방한 학교는 단국과 홍익이 대표적이었다. 두 학교 역시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학교였다. 단국대학을 설립한 梵亭 張炯(1889~1964)은 독립운동 시기는 물론 8.15 이후에도 백범 김구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던, 김구 정치사상의 계승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었다. 따라서 장형의 건학이념은 8.15 이후 민족주의 세력의 입장과 지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장형은 교명을 ‘단국’으로 정하고, ‘홍익인간’을 건학이념으로 천명하였다. 장형이 ‘홍익인간’을 건학이념으로 표방한 것은, 외형상 교육부가 제정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흡사했다. 친미정권이나 다름없는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이 주장했던 一民主義가 이승만의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민주의는 ‘민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민중·반민주적인 통치이념으로 평가받았다. 이승만에서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 또한 지속적으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내세웠지만, 민족주의를 표방한 국가주의를 선전하고 독재정권을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하였다.

따라서 문민정부 시기를 지나면서 민주진영에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에 대한 폐지운동이 일어났다. 민주진영에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제외시키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해방 이후부터 지속된 장기간의 독재정권 하에서 국가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념적 근거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현대사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이 통일과 민주화의 이념적 근거로 활용된 예는 없었을까? 장형의 경우에서 그런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형의 단군숭배의식은 안호상과 같은 것이었으나, 안호상이 일민주의라는 전체주의로 경도된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승만 정권 수립 이후부터 민족운동의 환경이 열악해졌지만, 장형은 줄기차게 독립정신의 계승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자유와 평등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했던 독립정신은 민주주의이념과 소통되었고, 열강들의 개입으로 분단된 민족의 통일국가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독립정신 계승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장형이 강조한 것은 민족통일과 민주주의의 완성이었다. 1960년 9월 4일 장형은 독립운동의 오랜 동지인 金弘壹과 함께 民強會를 설립하여 ‘민권신장’과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형의 민강회 활동은 1961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단국대 중간부가 폐강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장형은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준은 장형이 홍익인간을 건학이념으로 표방한 이유가 단군숭배 그 자체보다는 통일민족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 때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올바른 전통문화 계승의 핵심은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있다. 장형의 단군민족주의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상탄압에 앞장섰던 일민주의와는 달리 민주주의 정착과 민족통일의 시대적 과제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형의 단군민족주의는 전통사상과 당대의 시대정신이 적합하게 조응할 때라야만 가장 이상적인 역사적 의미를 견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참고문헌〉

- 교사편찬위원회, 『단국대학교50년사(상)』, 단국대출판부, 1997.
- 金九, 『金九自敘傳 白凡逸志』, 國土院, 1947.
- 김삼웅,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 建國實踐員養成所, 『第5期修業生名簿』, 大韓民國 30년 12월 19일.
- 檀國大學, 『專門部政治科第一回卒業記念앨범』, 4281.
- 檀大四十年史編纂委員會, 『檀國大學校四十年史』, 단대출판부, 1987.
- 梵亨惠堂紀念事業會, 『梵亨言行錄』, 檀國人會, 1986.
- 60년사편찬위원회, 『국민대학교60년사』, 국민대학교, 2007.
- 張忠植 理事長 인터뷰(2016.12.12); 『京鄉新聞』. 『檀大學生新聞』. 『檀大學報』. 『檀大新聞』. 『東亞日報』. 『朝鮮日報』.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 1950년대편』 3, 인물과사상사, 2004.
-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역사공간, 2015.
- 김광식 외, 『종교계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김동환, 『실천적인 민족주의 역사가 장도빈』, 역사공간, 2013.
-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대출판부, 1996.
-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 박걸순, 『국학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성내운, 『분단시대의 민족교육』, 학민사, 1985.
-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민영사, 1992.
-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선인, 2008.
- 장충식, 『시대를 넘어 미래를 열다』, 노스보스, 2011.
- 정태수, 『광복3년 한국교육법제사』, 예지각, 1995.

- 권태익·정용욱, 「근·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특강』, 2008(개정신판).
- 김병태, 「농지개혁의 평가와 전망」,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 김호일, 「日帝下 民立大學設立運動에 對한 一考察」, 『中央史論』 1, 중앙사학연구소, 1972.
- 김희곤, 「독립운동과 민족통일」, 『한국근현대사연구』 6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 박걸순, 「3.1운동과 국내 독립운동」, 『東洋學』 4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 박성순, 「梵亭 張炯의 獨立運動과 그 位相」, 『東洋學』 5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3.
- 박성순, 「한국 이후 범정 장형의 사회교육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 박성순, 「梵亭 張炯의 滿洲에서의 獨立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79,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 박정애, 「白凡의 政治思想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서중석, 「이승만정부 초기의 일민주의」,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1997.
- 서중석, 「이승만대통령의 반일운동과 한국민족주의」, 『人文科學』 30,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 손인수, 「朝鮮民立大學 設立에 關한 研究」, 『教育學研究』 5: 1, 한국교육학회, 1967.
- 유동희, 『美軍政期 大學設立에 關한 研究』,明知大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1.
- 이명화, 「民立大學 設立運動의 背景과 性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 이흥구, 「해방 후 백범 김구의 建國實踐員養成所의 설립과 운영」,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6, 백범학술원, 2008.
- 장석홍,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과 민족대학 설립 - 국민대학의 설립을 중심으로」, 『忠北史學』 11·12합집, 충북대사학회, 2000.
- 정미숙, 「단정수립 후 한국전쟁기까지의 교육」, 『중등우리교육』 11, 중등우리교육, 1991.
- 조동걸, 「臨政요인의 국민의 대학 설립」, 『韓國近現代史의 理解와 論理』, 지식산업사, 1998.
-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단국대학교」, 『東洋學』 4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 한시준, 「단국대학의 설립 정신과 정체성」, 『동양학』 53,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3.
- 한준상·정미숙,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 이 논문은 2017년 5월 20일에 투고되어,
2017년 6월 22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7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7월 1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Independence Activist Jang Hyeong's Dan'gun Nationalism and the Spirit of College Foundation

Park, Sungsoon*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in 1945, many colleges were erected with the names such as Kookmin, Dankook, Gukhak, Konkuk, Dongguk, Hongik, Shinheung etc. which contained dreams to build a new nation-state. Especially many of these colleges were erected by independence activists.

Those were Dankook and Hongik that expressed 'Hongik-inggan' as the spirit of college foundation of all colleges at that time. The two colleges were also erected by independence activists. Dankook's founder Jang Hyeong(1889~1964) whose nickname was Beom Jeong had taken activities with Kim Koo who was the president of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under Japanese rule particularly from the period of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after liberation. They said that Jang Hyeong was a successor of Kim Koo's political idea. Therefore Jang Hyeong's spirit of college foundation is a good case to examine the stance and intention of nationalist group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core for right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is deeply connected with a view of the world watching the world and the humankind. Jang Hyeong's Dan'gun nationalism has the meaning that tried to solve the tasks of the settlement of democracy and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nation-state different from Ilminjueui(Ilminism) that advocated dictatorship and thought oppression. Jang Hyeong's Dan'gun nationalism is a good case to show that only when traditional thought get along with the historical spirit of the current properly would have the highest ideal meanings of history.

[Key Words] Jang Hyeong, Dan'gun nationalism, Settlement of democracy, Establishment of a unified nation-state, Tradition and the historical spirit of the current

* Associat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